

☉ 불교총지종과 함께 떠나는 **인도&네팔**
8대 성·지·순·례



· **순례기간** : 1차 _ 2012년 12월 11일 (화) ~ 21일 (금) (10박 11일)
 2차 _ 2013년 1월 중 (10박 11일) 출발일 미정

· **순례지역** : 인도 & 네팔

- ① "부처님 탄생지" 룬비니(Lumbini)
 - ② "부처님께서 무상정각(無想正覺)의 깨달음 얻으신 성불(成佛)의 땅" 보드가야(Bodhgaya)
 - ③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하신 초전법륜지(初轉法輪地)" 녹야원(鹿野苑) 사르나트(Sarnath)
 - ④ "세계 최초의 불교사원 왕사성(王舍城) 죽림정사(竹林精舍)" 라즈기르(Rajgir)
 - ⑤ "제2차 경전결집 비사리(毘舍離) 대림정사(大林精舍)" 바이샬리(Vaishali)
 - ⑥ "부처님께서 24번의 하안거를 보내신 사위성(舍衛城) 기원정사(祇園精舍)" 스라바스티(Sravasti)
 - ⑦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오르시어 설법하신 후 하강하신 삼도보계(三道寶階)" 산카시아(Sankasia)
 - ⑧ "부처님 열반지" 쿠쉬나가르(Kushinagar)
- 아그라 타지마할 포함

· **순례비** : 2,790,000원 (변동환율 적용, 추가금액 발생 가능)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모집대상** : 승직자, 교도, 교도가족

· **신청기간** : 2012년 9월 30일 (일)까지

· **기타문의** : 불교총지종 | 통리원 대표 전화 ☎02) 552-1080
 총무부 서강 정사 ☎010-4258-1002
 (주)원트래블 ☎1577-2279



불교충지종
충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충지종보

2012년 8월 8일
음력 6월 21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충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지성(이기식)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6년 제 153호

뭇 중생들과 함께하는 불국토를 서원하며 충기41년 호국안민기원대법회 봉행



충기41년 호국안민기원대법회가 7월 16일 각 교구별로 일제히 봉행되었다. 서울·경인 교구는 충남 서산 만리포, 부산·경남 교구는 경남 하동 포구, 충청·전라교구는 경남 함양 농월정에서 봉행하였다.

대구·경북교구는 각 사원별로 다녀왔다. 수인사는 충북 청원 대청호 청남대, 개천사와 단음사는 거창 수승대, 국광사는 충남 금산 재원, 건화사는 충북 단양 낙산다리, 수계사는 경주 형산강변, 제석사는 대구 망우공원에서 법회를 봉행했다.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를 통해 “육신의 고통, 경제적 고통 속에 신음하는 수많은 중생들을 살릴 수 있는 참 대승의 방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법회를 통하여 이 사회의 모든 무명 중생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들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연기의 세계에서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모두가 보이지 않는 중생들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며 방생의 의미와 법회의 공덕을 설하였다.

각 교구는 법회와 방생을 마치고, 장기자랑과 관불로써 하반기 49일 불공의 노고를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서울·경인교구(교구장 법등정사)

서울·경인교구는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 선착장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미리 준비한 물고기를 방생하며, 생명의 중요함과 더불어 사는 중생들의 편안함을 기원했다.

한양여자대학 수련원 대강당에서 이어진 호국안민기원대법회에서 지성 통리원장은 봉행사를 통해 “오늘 이법회의 공덕으로 뭇 중생들이 자유로운 삶으로 불성을 이루기를 서원합니다.”며 법회에 동참하신 교도들의 공덕 성취를 서원했다. 법회를 마친 후에는 각 사원 별로 준비한 장기자랑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 서산 부석사 등을 관불 하였다.

부산·경남교구(교구장 수현정사)

오전 7시 부산을 출발한 버스는 10시 하동포구에 도착하였다. 미리 준비된 법단에서 호국안민기원대법회를 봉행하였다. 종령법어, 봉행사에 이어 신인록 부산·경남 신정회 지회장의 발원문 낭독이 있었다. 부산·경남 교구장 수현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49일 진호국가불사에 동참해 주신 교도 여러분들의 무량한 공덕 있으시기를 서원합니다.”며 무사히 불공을 회향하고, 방생법회에 동참하신 교도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각 사원에서 준비한 장기자랑으로 피로를 씻어버리고, 하동 일원을 관불했다.

충청·전라교구(교구장 법우정사)

충청·전라교구는 하반기 49일불공회향 방생법회를 7월 16일 경남 함양 농월정에서 봉행하였다. 교구 스승들과 교도들이 뭇

중생들을 위하여 제1부 법회, 제2부 사원별 장기자랑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방생법회는 충청·전라교구 단독으로 연합 방생법회를 봉행하여 큰 의미가 있다.

교구장 법우정사는 방생법회 법문을 통해 “나의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베푸는 삶이 바로 부처님의 세상이라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모든 미물들을 사랑합니다.”며 서로를 배려하는 자비행을 강조하였다.

충청·전라교구 지회장인 만보사 민순분 보살은 “충청·전라교구가 이렇게 하나 된 모습으로 한 자리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더구나 많은 교도들이 동참하여 즐겁고 흥겨운 법회를 봉행하게 더욱 뜻 깊은 날이 되었습니다.”

며 앞으로 충청·전라교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를 서원했다. 교구는 법회 당일 회사한 인강방생비 전액을 충지종 사회복지재단에 전달했다.

(기사제공:충지종 지회장)

대구·경북교구(교구장 지공정사)

대구·경북교구는 각 사원별로 호국안민기원대법회를 봉행하였다. 각 사원별 방생지에서 법회를 봉행한 교구는 종령법어, 봉행사, 발원문에 이어 정

성껏 마련한 물고기를 방생하면서, 모든 중생들이 자유로이 불성을 찾을 수 있도록 서원했다.

포항 수인사는 대청호에서 방생법회를 열고,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관불하고, 속리산 법주사를 참배했다.

경주 국광사는 충남 금산 재원에서 법회와 방생을 봉행한 후, 대둔산과 속리산을 관불했다.

대구 개천사와 영천 단음사는 경남 거창 수승대에서 법회를 봉행했다.

경주 건화사는 충북 단양 남강 낙산다리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의성 교운사 등을 참배했다. 경주 수계사는 사원 인근의 형산강변에서 법회를 봉행하였다.

김종열 기자

경관대정사 7월 19일 열반

통리원 총무부장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원로스승



불교충지종 통리원 총무부장과 종정자문위원을 지낸 경관대정사가 7월 19일 열반에 들었다.

원정대성사의 입교개종(立教開宗)으로 충지종의 서막을 열어 가던 1977년, 경관대정사는 충지종 중앙교육원 이사

리과정을 수료하고 그해 11월 15일 전 법관정수계를 받고 교화의 길로 들어섰다. 종조님의 교사로 종단의 기틀을 다지는 서원을 세우고 1978년 육림서원당을 시작으로 교화의 일선에 나섰다. 이후 대정사는 통리원 총무부장, 재무부장, 사감원 사감위원, 재단 이사를 역임하고 종정자문위원으로 종단의 주요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하였다. 1997년 기로스승으로 진원한 경관대정사는 2000년 관성사 주교를 끝으로 퇴임하였다. 초등학교 교감으로 교육일선에 매진하다 입교한 경관대정사는 원정대성사의 입교개종의 정신을 받들어 종단의 기틀을 다지고 2012년 7월 19일 열반에 들었다. 경기 여주 출신으로 세수84세, 법랍35년이다. (안원기사)

김종열 기자

종립동해중학교 서원당 착공 불교를 통한 학생인성교육의 장

학교법인 관음학사 종립동해중학교의 오랜 바람인 서원당이 드디어 착공되었다. 학교법인 관음학사는 재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7월 초부터 시행되는 하계방학 기간을 이용해 충지종 서원당 공사를 시작했다.

교사 본관 2층 교무실 옆 교실 두 개 정도의 공간(95㎡)에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8월 중순 개학과 동시에 건립에 필요한 1

단계 내부 공사를 완료 할 예정이다. 법인 사무국장 법선정사는 “이번 서원당 건립을 통해 불교를 통한 학생 인성교육에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불교 어머니회의 법회 공간과 학생들의 교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불자들과 연대한 불자교사회 설립의 기초가 되리라 봅니다.”며 동해중학교 서원당 건립의 의미를 평가했다.

부산, 경남 교구 연등축제 장려상 수상

부산봉축위원회(회장 수불스님)는 7월 17일 오후 5시 부산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2부산연등축제』 회향 보고회를 봉행했다.

충지종 정각사 주교 대원정사, 신인록 부산, 경남 신정회 지회장을 비롯한 각 종단, 사찰, 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부산봉축위원회 회장 수불스님은 신인록 부산, 경남 신정회 지회장에게 장려상을 수여하였다. 충지종 부산·경남교

구는 이번 봉축 행사에 높은 단결심으로 타 종단과 사찰에 모범을 보여 이 상을 수상하였다. 창작등 최우수상에는 당리동 관음사, 종합대상의 영예는 한마음선원이 차지했다.

이날 참석한 부산지역 원로대덕스님들과 신형 단체장들은 어느 때보다 성황을 이룬 금년행사를 위해 노력한 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였고, 내년 행사는 보다 발전할 수 있기를 서원했다.

- 교훈 : 신의·성실·정직
- 교목 : 보리수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충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충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2012 런던올림픽 불자선수들의 돋보이는 활약

6일 현재 사격 진종오, 양궁단체 최현주·기보배, 펜싱 김지연,

사격 김장미 선수, 양궁 기보배 불자선수 6개 획득



2012 런던올림픽에서 첫날 사격 진종오 선수(오른쪽 맨위)가 한국선수단에 금메달의 물꼬를 튼데 이어 30일 양궁단체 최현주·기보배(오른쪽 두번째), 1일 펜싱 김지연·사격 김장미(오른쪽 맨아래), 2일 양궁 기보배, 5일 사격 진종오 선수등 불자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다.

진종오, 양궁단체 최현주·기보배, 펜싱 김지연, 사격 김장미 선수, 양궁 기보배 불자선수들이 6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조계종 중앙신도회 이기흥 회장이 런던올림픽 선수단장을 맡고 있어 현재 불자선수들의 선전은 더욱 돋보이고 있다.

진종오 선수가 첫날(한국시간 7월 28일 밤) 런던올림픽 남자 10m

공기권총 결선에서 본선 및 결선합계 무려 668.2점으로 경쟁자들을 여유있게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진종오 선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8월 5일 남자 50M 권총에서 올림픽 2연패와 런던올림픽 2관왕을 차지했다.

이에 앞서 진 선수의 부모는 7월 29일 춘천 삼운사에서 금메달 2관왕 기원법회에 동참했다. 진 선수의 부친인 진재호 씨와 모친 박숙자 씨는 "종오의 이름을 절에서 지었다. 종오는 지금껏 싫은 소리 한번 듣지 않았을 정도로 바르게 자랐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끈은 성품이 금메달을 얻도록 도와준 것 같다"고 말했다.

여자펜싱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김지연 선수는 1일 펜싱 여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서 러시아의 소피아 벨리카야를 꺾는 쾌거를 이룩했다. 여자 사격 사상 두 번째 금메달을 딴 김장미 선수는 여자 25미터 권총에 출전해 결선 합계 792.4점으로 중국 천인 선수를 1점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양궁 기보배 선수는 2일 멕시코의



아이다 로만 선수를 6대 5로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진각종 회당문화축제 '독도아리랑' 성료

울릉도의 대표적 문화축제로 자리잡아



울릉도는 진각성종 회당 대중사의 탄생지다.

이번에 12회를 맞는 회당문화축제(7.30~8.1)는 울릉도와 독도가 지닌 역사, 환경 등 시대적 관심을 함께 공감하고, 문화적인 감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에는 독도의 날 제정 1000만인 서명운동, 독도사건전 등이 도동항에서 다채롭게 펼쳐졌다.

31일에는 도동항 미니콘서트(도동항 공원), 동해 지킴이 위문콘서트(울릉한마음회관)가 열렸으며, 1일에는 독도를 방문한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정사가 독도경비대에 후원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저녁에는 이번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 독도아리랑콘서트(서동항 특설무대)가 개최돼 울릉도 주민을 비롯한 관광객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이끌었다.

독도아리랑콘서트는 서예가 권상호씨의 '진호국가'와 '독도아리랑'을 쓰는 서예 퍼포먼스로 시작했다.

공연 중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정사는 군부대, 울릉군청년단, 울릉대권도협회에 지원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지원금과 위문품 전달 후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동쪽은 해가 뜨는 곳으로 평화와 통일의 그 길도 이곳에서 시작되기를 바란다."며 "지방자치단체인 전국 시·도 가운데서 가장 큰 군이 독도라고 생각한다. 지도상으로는 조그마한 섬이지만, 독도와 울릉도를 연

결했을 때 동해 전체가 울릉군이라고 본다. 어느 도가 이처럼 크겠느냐?"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광식 장관은 김성호 종무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종교를 넘어 울릉군민의 축제로 자리매김한 제12회 회당문화축제를 축하드린다"며 "신명나게 울려 퍼질 독도아리랑의 그 흥분한 기운이 한반도의 불빛이 되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기도가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꿈나무어린이집 5.6세 아가들의 귀엽고 감쪽하고 앙증맞은 춤에 관객들은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흥겨운 축제는 동덕여대 실용음악과 여학생들, 퓨전락그룹 '프로젝트'樂, 비보잉 그룹 '플라잉코리아' 등의 무대로 열기를 더해갔다. 마지막으로 '노브레인'의 식을 줄 모르는 열정적인 공연을 끝으로 축제는 마무리됐다.

한편 회당문화축제는 진각성종 회당 대중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2001년부터 시작했다. 울릉도와 독도가 지닌 역사, 환경 등 시대적 관심을 온 국민이 공감하는 울릉도 최대의 지역문화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진각종과 울릉군민, 민간자원봉사자들의 맑고 정성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종교를 뛰어 넘어 울릉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매년 다양한 문화행사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진행되고 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지역 교구 재편-직할 분구 제안

전등사, 조계사, 봉은사를 교구본사 대리사찰로 지정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역 관할교구의 경계를 확정하고 직할교구를 강북·강남·인천의 세 지역으로 분구하자는 제안이 그것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직할교구중회 역할 강화 및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할교구 내 409개의 말사가 있지만 이 중 수도권에 위치한 사찰은 35%에 불과하다. 이 중 사실사암이 85%에 달한다. 그런만큼 포교환경이 다른 서울 강남·강북지역을 나누고 불교세가 약한 인천의 중무행정 공백 완화와 강화·김포·부천의 포교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을 별도로 분구하자고 제안했다. 또 경기도 일부 지역 가운데 직할교구, 제2교구, 제25교구에 누락되거나 중첩돼 있는 지역을 각 교구에 편입시켜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구소의 주장이다.

회정안에 따르면 직할은 서울과 고양·광주·인천·강화·김포·부천·옹진·성남·광명·과천·하남 구리, 용주사는 수원·화성·안성·용인·평택·여주 인천·시흥·안양·안산·군포·의왕 오산을, 봉선사는 의정부 양주 남양주 양평 연천

"직할교구를 강북, 강남, 인천 세 지역으로 나눠 전등사, 조계사, 봉은사를 교구본사 대리사찰로 지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체된 수도권 불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지역 불교세 확장을 위해 수도권지역 관할교구를 다시 정해야

법안스님은 "지난 60년간 종단이 수도권에 방치하다보니 교세는 약화되고 공신력은 축소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톨릭에 쫓겨 제2종교의 위치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제3의 종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개천사	이희권	6/27	10,000
개천사	강순시	7/13	10,000
개천사	한재호	7/16	10,000
개천사	이희강	7/16	10,000
개천사	무명씨	7/17	10,000
건화사	무명씨	7/4	5,000
관성사	박현숙	6/27	10,000
관성사	황성녀	6/28	10,000
관성사	인선	7/23	20,000
관음사	신막심	7/11	30,000
기로	대관	7/23	10,000
기로	대자행	7/23	10,000
기로	밀공정	7/23	10,000
기로	법수원	7/23	10,000
기로	법장화	7/23	10,000
기로	법지원	7/23	10,000
기로	불멸심	7/23	10,000
기로	사홍화	7/23	10,000
기로	상지화	7/23	10,000

기로	수증원	7/23	10,000
기로	총지화	7/23	10,000
기로	선도원	7/23	10,000
단음사	천공	7/5	4,000
단음사	법연지	7/16	10,000
단음사	신정희	7/20	268,000
단음사	일동		
덕화사	하순옥	7/23	5,000
덕화사	시정	7/23	10,000
덕화사	원만원	7/23	10,000
만보사	갈중숙	7/4	30,000
만보사	정덕순	7/4	10,000
만보사	김복심	7/17	30,000
만보사	정덕순	7/25	10,000
밀인사	정정희	7/2	5,000
밀인사	무명씨	7/12	10,000
밀인사	이위임	7/24	100,000
밀인사	이재갑	7/24	20,000
밀인사	이혜성	7/24	20,000

밀인사	이혜성	6/26	20,000
법천사	김정숙	7/3	10,000
벽룡사	무명씨	7/3	10,000
벽룡사	무명씨	7/3	10,000
벽룡사	양정현	7/11	10,000
벽룡사	양지현	7/11	10,000
선립사	심지장	7/19	10,000
성화사	우담바	7/13	60,000
성화사	라희		
수인사	장영택	6/26	50,000
수인사	김봉기	6/27	10,000
승천사	원봉	7/11	10,000
승천사	지선행	7/11	10,000
시법사	진여행	7/20	10,000
실보사	이동화	7/3	10,000
실보사	이순옥	7/13	10,000
실보사	조순애	7/17	100,000
실지사	정우석	7/5	10,000
정각사	박동휘	7/24	10,000

정각사	구정희	7/25	20,000
지인사	승효계	7/11	10,000
지인사	허성동	7/20	30,000
초록어	김명순	7/9	5,000
린이집			
통리원	김정연	7/9	5,000
통리원	김지영	7/9	5,000
통리원	조정아	7/20	5,000
통리원	장동욱	7/25	10,000
혜정사	무명씨	6/28	20,000
혜정사	조성기	7/12	10,000
혜정사	김경미	7/16	20,000
화음사	강순란	6/29	5,000
화음사	박옥자	7/24	10,000
흥곡사	자정	7/11	20,000
	최순전	6/28	20,000
	이혜원	7/2	5,000
	이용환	7/25	50,000
	원정연	7/25	30,000

6월26일부터 7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종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산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백년대계의 초등교육 현장을 버리고 진언 밀교 정법 교화를 위해 수행 정진

7월 21일 경관대정사 고결식 봉행



백년대계의 초등교육 현장을 버리고, 진언 밀교 정법 교화를 위해 수행 정진한 경관 대정사가 7월 19일 열반에 들었다. 총지종 총리원은 장의위원회(위원장 지성 총리원장)를 구성하고, 7월 21일 오전 7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뉴타운 장례식장에서 총무부장 인선정사의 집공과 재무부장 시정정사의 사회로 고결식을 봉행했다.

장의위원들과 유가족, 전국의 스승 교도들이 참석한 고결식에서 지성 총리원장은 “경관 정사님께서는 뼈를 깎는 듯한 용맹정진으로 저희들에게 귀감이 되고, 간단 없는 수행일념의 삶은 우리 종단이 나아갈 큰 길이었습니다. 저희들 또한 경관 정사님의 한량없는 법은(法恩)을 오래오래 가슴에 새겨서

더욱 밝은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단과 저희들의 크나큰 인연을 생각하시어, 오늘은 비록 저희들 곁을 떠나 극락정토에 가시더라도 계속하여 종단발전과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저희들을 하루속히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무명과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 지혜와 성취의 길로 들게 하소서.”며 고결사를 통해 극락왕생을 서원했다.

승단을 대표해 서울, 경인 교구장 범등 정사는 추도사에서 “우주 삼라만상이 머무름이 없다. 하나, 경관 정사님께서 이렇게도 홀연히 떠나시니 일체가 무상이요, 슬픔과 허전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생전의 그 모습을

어디에서 다시 뵈울 수 있겠습니까. 경관 정사님께서서는 일생을 오직 중생제도와 종단발전에만 매진하셨던 큰 스승님이셨습니다. 자비와 인과를 범으로 삼아 언제나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며 스승을 잃은 슬픔을 전했다. 고결식을 마친 범구는 수원 연화원에서 다비식을 거행하였다.

경관 대정사는 1928년 무진생으로 1977년 전법관정수계를 받았다. 1978년 육합서원당을 시작으로 교화의 일선에 나섰다. 이후 총리원 총무부장, 재무부장, 사감원 사감위원, 재단이사, 종정자문위원 등으로 종단의 주요 보직을 원만하게 수행하였다. 49재는 서울 관선사에서 봉행 될 예정이다.

김종열 기자

마지막 가는 길 무소유의 실천으로 스승의 도(道)를 다하다.

고 불명각 전수님 종단에 교화 희사금 일천만원 남겨



평생을 낮은 곳에서 교화와 수행에 정진하고 열반에 든 고(故) 불명각 전수가 무소유의 실천으로 스승으로서 마지막 법문을 남겼다.

총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열반에 든 고 불명각 전수는 전액을 종단의 교화발전을 위해 희사했다고 전했다.

총무부장 인선정사는 “평소 검소한 승직자의 삶을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불명각 전수님은 마지막까지 승직의 모범으로 무소유를 실천하셨습니다. 총리원 집행부는 고인(故人)의 거룩한 유지를 받들어 교화를 위해 소중하게 쓰겠습니다.”며 희사금의 공정한 집행을 약속했다.

불명각 전수님은 1931년 기사생으로 평생을 종단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자진해서 도맡아 하였고, 총기 31년 승천사에서 교화의 길에 들었다. 지난 3월 19일 세수 81세로 세연과의 인연을 다하고, 교도들의 극락왕생 서원을 받으며 아미타정도로 가셨다. 49재는 경주 국광사에서 봉행되었다.

김종열 기자

종무원 교양교육 시행

불교 이론 함양과 직무능력 향상을 목표



총지종 종무원들의 불교 이론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7월부터 시행되었다.

총지종 중앙교육원은 종무원들의 자발적인 요청과 집행부의 후원으로 불교이론과 직무교육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7월 첫째 수요일 오후 4시부터 화령 중앙교육원장은 『불교 교양으로 읽다』를 교재로 ‘불교이론’ 강의에 들어갔다.

첫 강의에 나선 화령 중앙교육원장은 “그동안 종무원들의 불교이론 교육이 미약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강좌를 계기로 다양한 경쟁력을 갖춘 종무원 양성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며 강좌의 성공을 서원했다.

강좌는 불교이론, 예술문화, 직무강좌 등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다.

김종열 기자

부산·경남 교구 방생법회 희사금 이웃사랑 복지금 전달

총지종 부산·경남교구(교구장 수현 정사)는 지난 7월 16일 경남하동에서 봉행된 호국안민기원대법회에서 교도들의 희사금과 지난 수년 동안 모인 금액을 최근 이웃 사랑 복지기금 및

용품 전달해 화제가 되고 있다. 교구는 만다라 노인요양시설에 1인용 온열 매트 10장(약60만원 상당)과 부산 바라밀 공부방에 교사용 책, 결상 3조와 바닥 타일 교체비용(약3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부산·경남교구는 앞으로도 복지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한 종단 내외의 기관 및 개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불교총지종에서 발행하는 불교전문지

위드다르라는 진리의 말씀은 오늘이 전하는 길잡이입니다

Contents 8. 2012

불교이야기. 공부하는 불자가 되자_화령정사
수행이야기. 한 생각 차이_성운대사
[테마기획] 중도의 삶을 살아라_본각스님
진언수행의길_정법계진언_법경정사
[기획연재] 천궁_원철스님
만다라세상. 아름다운 인생이란_지정정사
마음의등불. 일용사무별_방거사
행복찾기. 마음[길]을 걷다_지연전수
차양기속으로. 진실로 사랑하기 위해_김남조
빠알리경전읽기. 걸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진리의 길. 좌자정리,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_보정
아주특별한선물. 세상의 남자와 여자에게_달라이라마
이달의경전. 원각경
씨앗한알. 가벼우면서도 무거운 것
이야기꽃. 내마음의 숲_김지수
지혜의뜨락. 내 등의 집_정호승
디딤돌. 그 섬에 가면 모든 것이 금이다_전진
생각하는 우화. 우물에 빠진 달
함께보는불교미술. 모래공양을 올린 아이
산책. 오련_백장우
규제와편견의안개를넘어서여성들. 주논개_박보정
걸망의담기이야기. 68명중 68등
건강한방상. 여름술이로 만든 ‘송이국밥’
우리말바루기. 옛빛과 옛별 | 다반사

영원한 진리의 말씀 **위드다르마**

☆ **만다라세상**

‘어젠가 내 인생에 어김없이 노을이 찾아들다면
마지막 노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련다.
해 저문 노을을 미소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련다. 타들어가는 생명의 괴리를 잡고 마지막
인생을 넉넉하게 관조할 수 있는 여유로운
미별의 노래를 부르련다.’

- 아름다운 인생이란 꿈에서

☆ **담고 싶은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 보내실 곳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불교총지종 위드다르마 편집부
-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22-047811-13-128 예)불교총지종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8월 통권 106호 표지
계곡 물결에 다들어진 등그런 바위.
한여름 무더위 피해 밤 담그고 있네.

불교의 선정 10



화령
(중앙교육원장)

삼십칠조도품과 사념처 수행

삼십칠조도품(삼십칠보리분) 열반(해탈)에 들어가는 37종의 수행방법
三十七助道品(三十七菩提分)

사념처 (四念處)	신념처(身念處) : 몸의 부정한 것을 관한다 수념처(受念處) : 감각의 괴로움을 관한다 심념처(心念處) : 마음의 무상함을 관한다 법념처(法念處) : 제법이 무아임을 관한다	
사정근 (四正勤) 사정단 (四正斷)	율의단(律義斷) : 이미 생긴 악은 멸한다 단 단(斷斷) :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은 일어나지 않게 한다 수 단(修斷) :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은 일어나게 한다 방호단(防護斷) : 이미 일어난 선법은 더욱 자라게 한다	
오근 (五根) 오승근 (五勝根)	신근(信根) : 삼보에 대한 믿음 정진근(精進根) : 정진노력하여 선을 키우고 악을 누르는 능력 염근(念根) : 바르게 생각하여 잊지 않는 것 정근(定根) : 정신상태를 조절하는 힘 혜근(慧根) : 사물의 본질과 진리를 체득하는 지혜	오력 (五力) 신력(信力) 근력(勤力) 념력(念力) 정력(定力) 혜력(慧力)
사신족 (四神足) 사여의족 (四如意足)	욕신족(欲神足)/욕여의족(欲如意足) : 뛰어난 선정을 얻으려고 간절히 원하는 것 근신족(勤神足)/정진여의족(精進如意足) : 뛰어난 선정을 얻기 위하여 쉬지 않고 정진하는 것 심신족(心神足)/심여의족(心如意足) : 마음을 고요히 하여 뛰어난 선정을 얻는 것 관신족(觀神足)/사유여의족(思惟如意足) :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지혜로 관하여 뛰어난 선정을 얻는 것	
칠각지 (七覺支) 칠각분 (七覺分)	염각지(念覺支) : 자기의 언행을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 택법각지(擇法覺支) : 바른 지혜로써 옳고 그름을 잘 살피는 것 정진각지(精進覺支) : 선을 기르고 악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희각지(喜覺支) : 님음에 의하여 기쁨이 생기는 것 경안각지(輕安覺支) : 기쁨에 의하여 심신이 가분해 지는 것 사각지(捨覺支) : 어떤 일에도 마음이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 정각지(定覺支) : 마음이 편안해지고 통일되는 것	
팔정도 (八正道)	정견(正見) : 바른 견해 정사(正思) : 바른 생각 정어(正語) : 바른 말 정업(正業) : 바른 행위 정명(正命) : 바른 생활 정념(正念) : 바른 기억 정정진(正精進) : 바른 정진 정정(正定) : 바른 선정	

불교가 다른 종교나 철학, 사상 등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실천수행에 대한 방법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어느 종교이든 나름대로의 실천체계는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불교만큼 체계적이고 논리정연하며, 또 실제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니고 있는 종교는 거의 없다.

그리고 철학이나 사상은 나름대로의 논리체계는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한 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론의 제시에 있어서는 상당히 취약한 면이 있다.

불교는 고도의 철학이면서도 그것을 실천할 수행방법이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어 자기의 근기에 맞게 선택할 수가 있다.

불교의 수행체계를 크게 보면 앞에서 말한 계, 정, 혜의 삼행으로 나타내 보일 수가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근본불교의 수행법으로서는 삼십칠조도품(三十七助道品)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삼십칠보리분(三十七菩提分)이라고도 한다.

즉 깨달음에 이르는 37가지 방법이라는 뜻이다.

우선 이 37가지의 수행법을 보면 크게 나누어 사념처(四念處), 사정근(四正勤), 사여의족(四如意足), 오근(五根), 오력(五力), 칠각지(七覺支), 팔정도로 구분할 수 있고, 이것을 모두 더하면 37가지가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37가지의 도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하여 삼십칠조도품이라고 하는 것이다.

삼십칠조도품 가운데에서 먼저 사념처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사념처는 팔정도 가운데 정념에 해당하는 것인데, 사념주(四念住)라고도 한다.

이것은 몸과 감수 작용, 마음, 법이라는 신(身),수(受),심(心),법(法) 네 가지를 올바르게 생각하여 잊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몸은 부정한 것이며, 느낌은 괴로운 것이고, 마음은 무상한 것이며, 법이 무아인 것을 늘 생각하고 잊지 않는 것이다.

사념처의 근거가 되는 것은 《대염처경(大念處經)》이며 빨리 경전에서는 《마지마 니까야》 제10경과 《디가 니까야》 제22경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에 대한 주석은 일찍부터 만들어졌었는데 빨리

어로 된 주석은 4세기 경에 완전 소실되고 지금은 스리랑카의 판본에서 빨리어로 중역(重譯)한 것으로서 4세기의 불교학자 붓다고사(붓음(佛音)) 가 이를 완성했다.

남방의 상좌부 불교에서는 《대염처경》이 대단히 중시된다.

마치 북방 대승불교에서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을 중시하는 것에 필적할 정도이다.

남방불교에서는 《대염처경》을 배우고 외우며 닦는 것이 다른 모든 경전을 배우는 것보다 공덕이 더 크다고 여길 정도이다.

왜냐하면 불법의 모든 것이 이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념처의 수행을 완전히 행하면 불법을 모두 깨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스리랑카에서는 출가자 뿐만 아니라 재가신자들도 집에서 이 《대염처경》을 베껴 쓰고 외우고 학습하며 깨끗한 천에 경을 써서 잘 치워놓았다가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이 경을 함께 읽기도 한다.

심지어는 임종시에도 이 경을 읽어주기도 한다.

《잡아함경》에서도 이렇게 설하였다.

“일체법이라는 것은 사념처를 말하는 데 그 이름이 정설(正說)이다.”

이처럼 37조도품 가운데에서 사념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수행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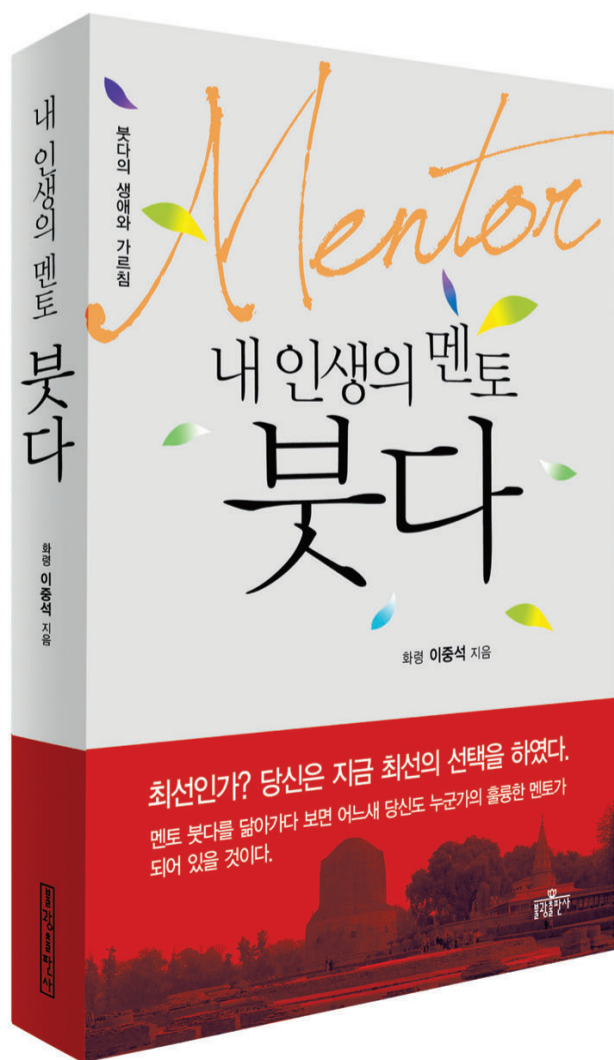
한 마디로 사념처를 닦지 않고서는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해탈을 얻을 수도 없다.

《대염처경》에서 부처님께서 사념처의 공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중생들을 깨끗하게 하고, 근심과 두려움을 건너게 하며, 괴로움과 번뇌를 멸하게 하고, 울음을 그치게 하며, 바른 법을 얻게 하는 한 가지 도가 있으니, 이른바 사념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이 사념처를 닦아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다.

사념처만 잘 닦아도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다.



고려 대장경 천년의 해, 한국인이려면 반드시 불교를 알아야 한다.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최선인가?

당신은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하였다. 삶을 변화시키는 인류의 영원한 스승 붓다와 만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달라진다.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들 곁에는 붓다가 있었다. 당신도 붓다를 닮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훌륭한 멘토, 세상을 바꾸는 존재가 될 것이다.

화령 이종석 지음
432면 | 18,000원

내 인생의 멘토 붓다

지상 설법

일상 수행의 매너리즘을 극복합시다!



만보사 주교 승원 정사

성도합시다. 올 여름은 무척이나 덥습니다. 정진하는 사람은 무더위에도 방일과 의혹을 물리치고 능히 맑은바 일을 해내며 행복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수행의 형식과 내용이 모두 달라야

얼마 전 불교계 신문에 안거(安居) 수행을 하는 재가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지만 그만큼 재가 불자들이 수행하는 일이 흔치않다는 것을 반증(反證)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에 비하면 총지종을 믿는 분들은 염송 정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 자칫 형식에 치우쳐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염송한 시간은 많으나 그냥 염주만 돌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수행의 식상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회부터 회향서원까지 형식과 내용이 달라야합니다. 매일 매일이 새롭고 자신의 삶을 반영하는 수행이 되어야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찬 수행을 위한 참회와 서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진정성 있는 참회로

[인선경]에 나오는 참회에 관한 말씀에는 『오욕으로 착하지 못한 업장을 지었더라도 ... 뒤에 다시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낙 가운데서 낙이 생기고 즐거움 가운데서 즐거운 마음이 생겨난다.』 고 했습니다. 진실한 참회는 지극한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일상의 수행에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참회가 가능할까요? '이전에 내가 지은-'으로 시작하는 참회계를 외우면서 새벽에는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저지르기 쉬운 잘못을 짓지 않기를

맹세하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동안 지은 악업을 점검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매일 매일이 다르기에 참회의 내용도 다르고 자신의 생활에서 잘못을 반성하기에 생활불교이며 살아있는 참회가 됩니다.

소원과 서원의 차이

소원(所願)은 단순히 원하는 것의 성취를 바라는 것이지만 서원(誓願)은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고 고치기를 부처님께 맹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은 바라기만 할 뿐 자신의 허물을 고치고 인격을 성장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니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퇴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서원은 자신의 고과(苦果)에 대한 원인이 자신의 허물에 있다는 바른 인식에서 출발하기에 인격완성과 행복의 성취가 빠릅니다.

2. 자신의 허물을 다스리는 바른 서원을 세워야

여기서 바른 서원에 관한 [부사의비밀대승경]의 말씀을 보면 『탐하고 인색한 허물을 다스리는 보살은 자신의 소유를 버리는 마음을 곧 일으키고, 계행을 파괴한 허물을 다스리는 보살은 계행을 가지는 마음을 곧 일으키고, 성내고 원한을 허물을 다스리는 보살은 균센 인욕심을 곧 일으키고, 게으른 허물을 다스리는 보살은 정진하여 성취할 마음을 곧 일으키고, 산란한 허물을 다스리는 보살은 선정할 마음을 곧 일으키고, 어리석고 나쁜 허물을 다스리는 보살은 원만하고 장애 없는 지혜로운 마음을 곧 일으킬 수 있다.』 고 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행복의

성취를 위해 자신의 허물을 다스리도록 서원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보시바라밀> 재물에 집착하여 인색한 사람은 재물을 더 많이 얻을 것을 원하지만 그 집착으로 인해 항상 재물에 전전공공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이 있어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지키느라 늘 초조합니다. 인색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사고 평판도 나빠집니다. 재물이 도리어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재물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부자이며, 재물에 집착하는 자 재물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재물에 대한 집착을 끊을 것을 서원하고 배움을 실천해 부와 명성, 건강 등의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계바라밀> 계율을 파계하는 허물을 가진 사람은 도덕적 삶에서 떠나 점점 더 많은 쾌락을 즐기게 해달라고 소원합니다. 마치 도둑놈이 "들키지 않고 오랫동안 많이 훔치게 해주세."라고 원하지만 그 말로(末路)는 비참합니다. 그로 인해 건강은 나빠지고 지혜와 복덕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계율을 지키며 사는 도덕적인 삶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알고 계율을 지킬 것을 서원해야 행복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인욕바라밀> 세상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성내고 원한을 잘 품는 사람들은 항상 일이나 사람관계가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일도, 인간관계도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니 그럴 때마다 성내고 원한을 가진다면 그러한 성품으로 인해 병고 등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분들은

넓은 이해심과 참을성을 기르는 인욕바라밀을 서원하고 성취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진바라밀> 게으른 허물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노력 없이 손쉽게 이루려고 하지만 세상에 노력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손쉽게 돈 벌 수 있다고 그럴듯하게 말하는 각종 불법과 합법적인 방법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설령 과거 지은 복으로 원하는 바를 성취하더라도 게으른 성품으로 인해 곧 복은 사라집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 중 대다수는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뜻밖의 행운에도 자신의 공덕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 그것이 복이 될지 해가 될지 판단한다고 합니다. 복이란 무한한 것이 아니기에 게으른 성품을 지닌 사람은 행복이 결과보다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게으른 성품을 버리고 정진할 것을 서원해야 합니다.

<선정바라밀> 마음이 산란한 허물이 있는 사람은 늘 분주할 뿐 마음과 육체의 피로가 심하고 실수가 잦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끊임없이 밖으로만 향합니다. 심지어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것을 싫어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분들은 고난에도 마음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선정바라밀을 서원하고 성취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바라밀> 인과에 어두워 어리석은 허물이 있는 사람은 어리석음으로 인해 인과관계를 모르고 항상 어두운 길에서 헤매게 됩니다.

[법구경]에 『어리석은 사람은 이양(利養)과 헛된 칭찬을 바라고, 수행인들 가운데서는

선배됨을, 승단(僧團) 안에서는 권력을, 그리고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존경을 바란다.』 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것에 집착해 많은 잘못을 저질러 고통을 받습니다. 인과를 훤히 알고 바른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무상하고 헛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바른 지혜를 배우고 익힐 것을, 원만하고 장애 없는 지혜로운 마음을 일으킬 것을 서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난 소멸이나 소원 성취 등의 이익을 원하지만 깊은 성찰이 없기에 공허하게 외물 뿐 삶의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는 수행자는 지혜·증익·경애·항복법의 사중수법과 함께 지혜·복덕의 2가지 공덕과 십바라밀의 성취를 위해 출세간법을 같이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바라밀의 성취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열쇠임을 알아 바른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각자가 일상의 수행에서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길 바랍니다. 더위에 건강 상하는 일 없기를 바라며 모든 분이 원한 없이, 번뇌 없이, 괴로움 없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여율

인연 따른 해탈

부처님께서 고귀덕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못한 데를 이르게 됩니다."

아니고 얽히지 않는 것도 아니며,

마음이 머무는 데가 없기 때문이요.

"번뇌를 끊는 것이 열반이 아니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열반이요.

이때 고귀덕왕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었다.

해탈도 아니고 해탈 아님도 아니요. 있음도 없음도

인연을 따라 탐욕을 내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고, 본래 탐욕의 성품이란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이요."

지혜가 결핍이 없는 것을 또한 열반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해탈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마음은 본래 얽매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며, 현재도 아니고 과거나 미래도 아니요. 모든 법은 제 성품이 없기 때문이요.

이 마음은 탐욕과 화합하지 않고 성냄이나 어리석음과 화합하지 않소.

보살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아주 끊어 버렸으므로 해탈했다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성품은 탐욕과 어리석음과 같은 번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래와 보살은 중도(中道)를 보입니다.

마치 해와 달이 안개나 구름에 가리면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와 달이 안개와 구름에 화합될 수 없는 것과 같소.

그리고 보살은 모든 법을 막힘없이 잘 알므로 해탈의

본래 얽매인 것이 아닌데 어찌서 마음이 해탈한다 하십니까?"

모든 법이 있다고도 하지 않고 없다고도 하지 않소. 인연으로 생겨나므로 그 인연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이요.

그러므로 탐욕의 번뇌가 마음을 더럽히지 못한다고 하며, 여래와 보살은 탐욕의 번뇌를 아주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해탈했다는 것이요."

지견(知見)을 얻었다고하며, 해탈의 지견을 얻었으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여래와 보살은 마음에 깨끗한 성품과 부정함 성품이 있다고

<열반경 고귀덕왕보살품>

그 전에 듣지 못한 것을 이제 듣고, 보지 못한것을 보고, 이르지

"마음은 탐욕의 번뇌에 얽히는 것도

단정적인 말을하지 않소. 그것은 깨끗한 마음이나 부정함

정리= 최영아 위원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지혜로운 어린이 + 예의바른 어린이 + 건강한 어린이

최고의 보육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강남구 현릉로 590길 63 리엔파크 5단지 아파트 관리동 1층 문의. 02-445-2326

전
해



▶ 서울 경인 교구



▶ 대구 경북교구



불교총지종

전국사원 호국안민대법회

탈과 방생의 의미를 가슴에 새긴 뜻 깊은 하루



▶ 부산 경남교구



▶ 충청 전라교구

지난호에서 태장계만다라의 사불(四佛)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태장계만다라의 사불(四佛)은 중앙의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동방(東方)의 보당여래(寶幢如來), 남방(西方)의 개부화왕여래(開敷華王如來), 서방(西方)의 무량수여래(無量壽如來), 북방(北方)의 천고뇌음여래(天鼓雷音如來)입니다. 사불(四佛)의 배대는 진언행자가 발심을 일으켜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당여래는 발보리심의 여래, 개부화왕여래는 수행정진의 여래, 무량수여래는 선정의 여래, 천고뇌음여래는 깨달음의 공능(功能)을 지닌 여래입니다. 이 사불을 모시고 수행과 기도를 행하므로써 진언행자는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배대는 금강계만다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지 사불의 명칭만 다를 뿐입니다.

금강계만다라의 사불(四佛)은 중앙의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동방에 아축불(阿闍佛), 남방에 보생불(寶生佛), 서방에 아미타불(阿彌陀佛), 북방에 불공성취불(不空成就佛)입니다. 태장계와 달리 금강계만다라의 동방은 아래쪽이고 위쪽이 서방입니다. 이번호에서는 동방의 아축불과 남방의 보생불을 말씀드리고 다음호에서 서방의 아미타불과 북방의 불공성취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축불의 청색신(靑色身)은 항마(降魔)와 최파(摧破)를 상징

아축불의 수인은 축지인, 항마와 조복, 부동, 최파의 뜻

동방(東方)의 아축불(阿闍佛)은 부동존(不動尊)이라는 뜻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는 여래'를 의미합니다. 『아축불국경』에 의하면, '일찍이 아주 먼 동방의 불국토에서 대일여래의 육바라밀 설법에 따라 무진에(無瞋恚)의 서원을 세워 부동(不動)의 경지를 수행하여 성불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처님이 밀교의 아축불의 원형(原形)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밀교가 성립하기 이전부터 이 여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도행반야경』 『법화경』 『유마경』 등 많은 경전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축불은 비로자나부처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덕성(德性) 가운데 '보리심(菩提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몸은 청색(靑色)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색은 마군(魔軍)을 물리치는 것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이러한 예를 총지종의 사중법(肆中法) 가운데 항복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청색의 세도단 안에 '라' 자를 관한다는 것인데, 청색은 바로 항마(降魔)의 색이며, '라' 자 또한 번뇌 망상을 소멸시키는 항마(降魔)와 조복(調伏)의 진언종자이므로 청색단(靑色壇)과 '라' 자는 바로 항복법의 핵심을 이룬다



아축불 : 발보리심의 여래

아축불의 존형(尊形)은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배꼽 앞에 두고, 오른손은 축지인(觸地印)을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축지인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심 아래에서 성도를 이룰 때 취한 수인(手印)입니다. 지신(地神)을 물리치고 마군을 항복시켜서 보리를 증득하였음을 상징하는 항마성도(降魔成道)의 수인입니다. 그래서 아축불의 진언을 '음 악소비아 흠'이라고 합니다. '음, 아축불이여, 흠'의 뜻입니다. 부처님의 명호와 진언 종자에 '부동(不動)'과 '항마(降魔)'의 뜻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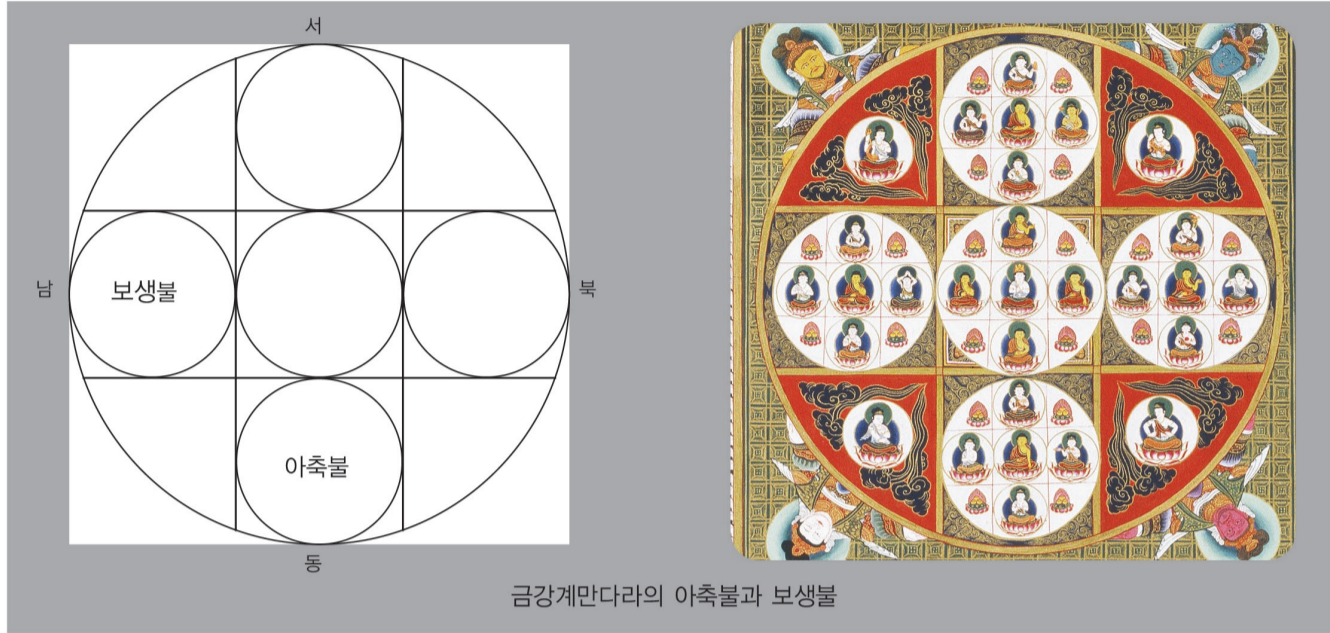
〈밀교연재〉

법경 정사가 전하는 밀교의 불보살 이야기 (5)

사불(四佛) Ⅲ.



법경 정사



금강계만다라의 아축불과 보생불

동방(東方)의 아축불(阿闍佛)은 부동존(不動尊)으로 '발보리심'을 상징 남방의 보생불(寶生佛)은 복덕구족존(福德具足尊)으로 '수행과 정진'을 상징

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색신의 아축불은 번뇌 망상을 없애는 항마와 조복의 여래이며,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不動)의 여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에서 보리심을 싹 틔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축불은 항마와 부동, 발보리심으로 상징되는 여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축불의 진언종자가 '흠'인 것입니다. '흠'자는 번뇌망상을 깨뜨려 없애는 종자입니다. 최파(摧破)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항마와 최파를 통해서 부동을 이루고 부동을 통해서 보리심을 발하게 됩니다.

아축불의 존형(尊形)은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배꼽 앞에 두고, 오른손은 축지인(觸地印)을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축지인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심 아래에서 성도를 이룰 때 취한 수인(手印)입니다. 지신(地神)을 물리치고 마군을 항복시켜서 보리를 증득하였음을 상징하는 항마성도(降魔成道)의 수인입니다. 그래서 아축불의 진언을 '음 악소비아 흠'이라고 합니다. '음, 아축불이여, 흠'의 뜻입니다. 부처님의 명호와 진언 종자에 '부동(不動)'과 '항마(降魔)'의 뜻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보생불의 황색신(黃色身)은 보배구슬에 비유, 복덕구족을 상징

보생불의 수인은 여원인(與願印), 복덕증장의 수행과 정진의 뜻

남방의 보생불(寶生佛)은 태장계만다라의 개부화왕여래와 마찬가지로 비로자나부처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덕성(德性) 가운데 '수행과 정진'의 공능(功



보생불 : 수행정진의 여래

能)을 주관하는 여래입니다. 보생불(寶生佛)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보배를 생(生)하게 하는 부처님'입니다. 그 보배란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수행과 정진'입니다. 수행정진을 통하여 깨달음을 이룬다는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능과 덕성을 지닌 부처님이 바로 보생불입니다. 다시말해서 보생불은 깨달음이라는 보배를 얻기 위하여 무궁무진한 수행과 정진을 행하도록 가르침을 주시는 부처님인 것입니다.

『진실설경』에 의하면, 비로자나불이 삼매에 들어 오른쪽 어깨 위로부터 금색광(金色光)을 발하여 남쪽의 무량세계를 비추어내므로써 이 보생불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금강계만다라의 가장 큰 특징은 비로자나부처님으로부터 사불이 나왔고, 사불은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 보답으로 공양보살을 출생시키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다시 비로자나부처님께서 또 다른 보살들을 내세우시니 그것이 바로 '금강계 37존(尊)'의 출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강계만다라에는 모두 1461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보생불의 존형(尊形)은 오른손으로 여원인(與願印)을 하고 왼손은 금강권을 하여 배꼽 앞에 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생불이 수행과 정진의 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게 되는데 그 작용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여원인(與願印)입니다. 그 여원(與願)을 수인(手印)과 보주(寶珠)로 상징화한 것입니다. 『진실설경』에 따르면, 수행자가 보생불의 삼매에 들어 여원(與願)의 인을 곁하고 그 손가락 사이로 여의보주를 모든 중생들에게 내려보내는 것을 마음 속에 그린다 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 사이로부터 쏟아지는 여의보주에서 의복, 갈매, 음악, 보궁전(寶宮殿) 등 온갖 묘한 것들을 이루게 해준다고 합니다. 여의보주(如意寶珠)란 '뜻하는 바를 이루어지게 해주는 보배구슬'을 말하는데, 하늘로 승천하는 용(龍)이 물고 있던 구슬이 바로 여의보주 구슬이지요.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어지게 하니 정말 보배주(寶環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생불의 색신(色身)은 비로자나불의 금색 광명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금색(金色), 혹은 황색(黃色)을 취하고 있습니다. 황색은 흔히 대지(大地)를 상징합니다. 대지는 동식물을 산출(產出)하며, 땅속에는 금은보석을 매장하고 있습니다. 수행의 복덕으로 중생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는 것을 여기에 비유하여 보물(寶物)의 황색(黃色)을 색신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보생불의 진언종자는 '프라흐'이며 진언은 '옴 라프라 삼바바 프라흐'입니다. '옴 보생존이여 프라흐'의 뜻입니다.

보생불을 나타내는 진언종자(眞言種子) '프라흐(trāh)'는 세 글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인데, 이를 바탕으로 보생불을 세 개의 구슬 보주(寶珠)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를 삼판보주(三寶寶珠)라 합니다. 판(瓣)은 '외씨 판'자로 세 개의 보배구슬을 참외 속의 씨앗에 비유한 것입니다. 중생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佛性)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생불은 우리에게 용맹정진으로 번뇌망상을 없애고 끊임없는 수행과 정진으로 소원하는 바를 얻고 구경에는 깨달음을 이룰 것을 묵묵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호에서는 '아미타불'과 '불공성취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경 정사/밀교연구소 연구원/ 법천사 주교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 전화문의 _ 불교총지중 통리원 02) 552-1080
각 사찰 주교님께 문의하시도 구입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_ 우리은행 1005-480-047811
(재) 불교총지중 유지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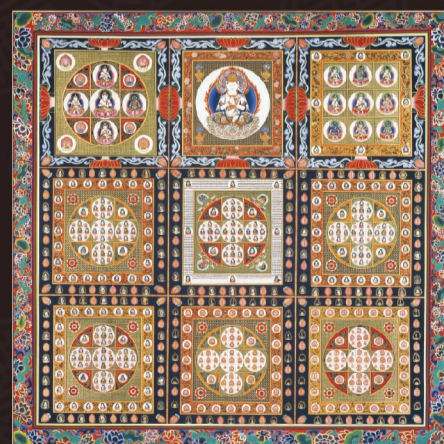
1. 만다라 세트 (금강계 만다라+태장경 만다라)

33cm X 33cm (액자포함)
30,000원



금강계 만다라 _ 金剛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서만다라고도 하는 이 만다라는 '금강정경'에 근거해 그려졌다.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금강계 만다라는 중앙의 성신회를 중심으로 9개의 작은 만다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천, 현경천불 등 모두 1,461존이 모셔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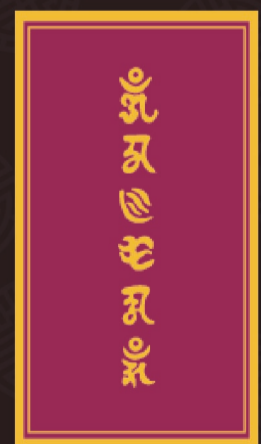


태장경 만다라 _ 服藏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정확하게는 '대비 태장생 만다라'이다. 대일경에 근거해 그려진 이 만다라는 태아가 모태 속에서 생육되어 가는 것에 비유해 대일여래의 보리심이 모든 생명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태장계 만다라는 중앙의 중대팔엽원을 중심으로 12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천, 신등 모두 414존이 모셔져있다.

2. 가정다라니

46cm X 27cm (액자포함)
27,000원



가정다라니

충지동의보감

자궁근종 꼭 수술해야하나



조선화 원장 (여성 美 한의원)

자궁근종은 부인과 환자의 약 30% 정도에서 나타나며 여성이 성인이 되고부터 가장 조심해야 할 병 가운데 하나이다.

자궁근종은 최근 계속 증가해 가는 추세며 발병연령도 낮아져 부인과 여성의 약 20%가 자궁근종이나 근종이 발생될 요인을 지니고 있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성숙한 여성의 3-40%에서 발병되며 35세부터 50세까지의 여성에 흔한 질병이다.

자궁근종은 자궁에 혹이 생기는 병으로 암과는 상관없는 양성종양이다.

사마귀 같은 군더더기 살이나 혹으로 생각하면 쉽다.

자궁근종의 증상은 생리가 길어진다거나 양이 많아지고 덩어리가 나오기도 하며 하복부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생리통, 하복통, 요통, 빈혈, 출혈, 압박감 등의 증상을 겪는다.

한방에서 자궁근종을 들쳐림 딱딱하게 굳어진다 하여 석가(石瘕)라고 칭한다.

근종이 큰 것은 성인의 머리 크기 이상의 것도 있으며 이것을 만져보면 마치 돌과 같으며 또는 임신한 것과 같은 배의 형태를 나타내기도 하여 이를 붙여졌다.

자궁근종의 원인은 자궁이 차가운 기운에 손상을 받아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면 어혈이 결성되어 돌과 같이 단단한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동의보감(東醫寶鑑)』에 “석가라는 것은

포(胞) 가운데가 접착된 후 피가 뭉친 소치이다” 하였다.

자궁근종의 증상은 “아랫배 부분이 돌과 같이 단단하고 임신한 것과 같고 월경이 나오지 않는다” 하였다.

자궁근종은 초기 특별한 임상증상이 없으나 어느 정도 진행하면 월경과다 혹은 부정출혈을 야기하는 수가 있으며 월경통을 수반한다.

자궁근종의 치료는 자궁내에 쌓여 있는 어혈과 적취를 풀어 주고 기와 혈의 순환을 원활히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때 강하게 어혈과 적취를 풀어 주다 보면 소화기계통이 손상될 수 있다.

몸의 기운이 약하고 소화기계통이 좋지 않은 경우 기운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료해야 한다.

자궁근종을 한방으로 치료하려면 어혈로 인해 자궁근종이 생기는 경우가 다수 있는 만큼 치료 역시 어혈을 제거하는 약물을 위주로 처방된다.

한방 자궁근종 치료를 통해서 최대한 자궁근종의 성장 속도를 늦추며 성장을 정지시키고 수축을 도모하게 된다.

한방에서는 자궁을 여성의 미용과 장수, 건강에 꼭 필요한 기관으로 보고 전신의 기혈을 돕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요법을 통해 자궁근종의 원인이 되는 여성호르몬의 불균형을 해소한다.

다만 자궁근종을 수술해야 하는 경우는 투약 후에도 조금도 반응하지 않고 계속 커지기만 하는 경우와 폐경기 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암이 될 수 있으므로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다.

자궁근종의 증상은 크기와 성장부위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임상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자궁근종이 생기면 알게 모르게 월경의 양이 많아져 빈혈이 되면서 혈기가 없어진다.

▶ 근종 덩어리가 있으므로 자궁내의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 자궁근육의 정상적인 수축이 이루어지지 못해 생리통이 발생한다.

▶ 월경주기와 관계없이 부정기출혈이 있다.

▶ 자궁근종이 있으면 골반내의 혈관이 압박되며 혈액순환까지 나빠져 골반내의 울혈이 생긴다. 출혈을 일으켜 하복부에 묵직한 통증을 느끼거나 허리도 아프게 된다.

▶ 장의 운동능력이 저하되어 변비가 되기 쉽다. 방광을 압박하므로 소변보는 횟수가 많아지고 통증을 느끼거나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

자궁근종의 악화방지와 예방법

- 1. 한의학적으로 근종의 발생과 악화요인을 어혈로 보며 어혈을 촉진하는 음식인 쇠고기, 닭고기, 우유, 인스턴트식품, 튀김음식 등을 삼간다.
2. 커피나 음주, 흡연 등도 혈액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저하시키고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다.
3.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변비를 예방한다.
4. 전자과는 중량을 단단하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가끔씩 피한다.
5.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긴장을 풀기 위한 적절한 운동, 산책 등을 한다.
6. 차가운 음식과 수영 등은 삼가야 한다.
7. 하복부혈액순환을 위한 찜질, 좌훈욕, 반신욕 등을 하루 15-30분 정도 한다.
8.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이 치료 및 예방에 효과적이다.

불자생활법률

하나로 등기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재판에서 판결을 받아 집행이 불가능한지요?



불자변호사 하동길 변호사의 생활법률이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매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김씨는 이씨로부터 이씨 소유 1필지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김씨가 매수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김씨는 특정된 매수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에는 분할을 명령하는 판결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 매수부분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요?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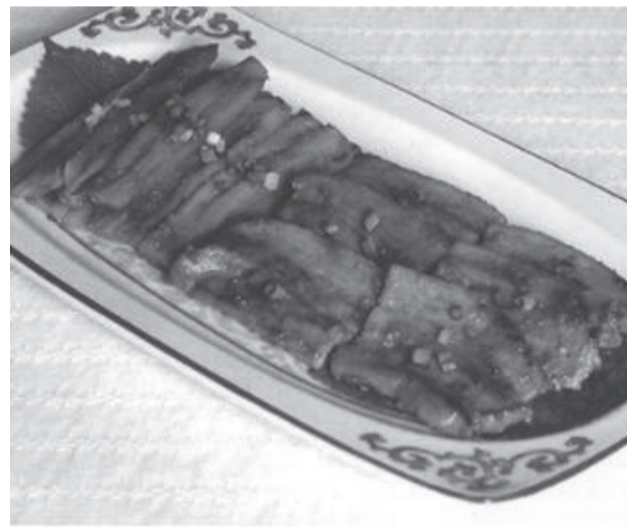
그리고 「부동산등기법」 제52조(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는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등기도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

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하나의 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할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판결, 1994. 9. 27. 선고 94다25032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김씨도 이씨를 대위하여 위 토지의 분할신청을 하여 분할등기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즐겁게 만드는 건강 요리



더덕의 효능

더덕은 여러해살이 풀이며, 향기가 독특하다.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가장 짙은 냄새를 풍기며 인삼처럼 약효가 뛰어나다 해서 '사삼'이라고 부른다. 더덕은 주로 중기와 폐를 보하는 약으로서 고름을 빼고 부은 것을 내리게 하며 해독 작용을 한다.

더덕의 단면을 자르면 하얀 진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인삼의 약 성분인 사포닌이 들어 있다. 더덕을 고를 때는 우선 향이 좋은 것을 고르면 좋다. 좋은 더덕은 뿌리가 희고 굵으며 전체적으로 몸체가 둥글게 뾰는 것이 약효와 맛이 모두 좋다.

“더덕 고추장 삼겹살”

재료 준비

삼겹살 500g, 더덕 250g, 소금 약간, 식용유

* 양념장; 고추장 5큰술, 고추 가루 1.5큰술, 간장 1큰술, 청주 2큰술, 다진 마늘 2큰술, 다진 생강 1작은술, 물엿 2큰술, 설탕 2큰술, 후추 1/3작은술

* 유장; 간장 1작은술, 참기름 1큰술

조리 방법

- 1. 더덕의 머리를 자르고 껍질을 벗겨 세로 방향으로 2~3등분한다.
2. 더덕의 쓴 맛을 없애기 위하여 열은 소금 물에 30분간 담가 둔다.
3. 더덕을 건져 내어 깨끗한 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방망이로 가볍게 두들겨 넓적하게 펴서 부드럽게 만든다.
4. 간장과 참기름으로 유장을 만들어 붓으로 더덕의 앞뒤에 골고루 발라 준다.
5. 삼겹살과 더덕에 양념장을 만들어 바르고, 양념이 배게 30분 이상 재워 둔다.
6.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 중불로 줄인 후 삼겹살과 더덕을 올려 타지 않도록 굽는다.

기타 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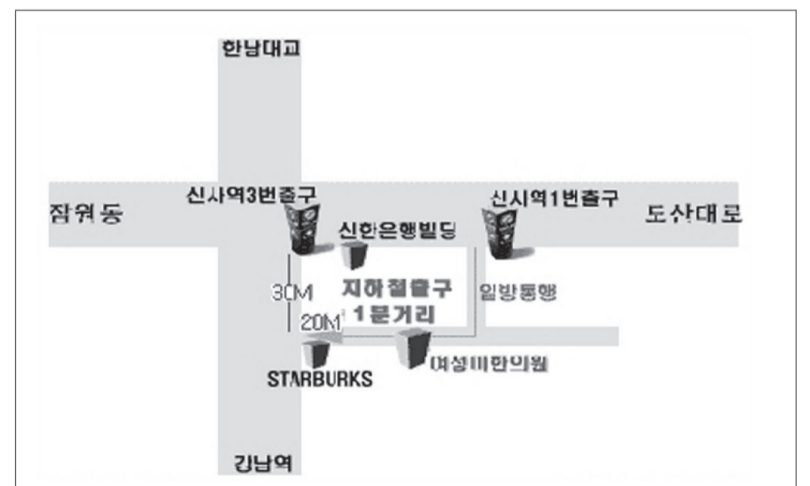
- 1. 더덕의 껍질을 벗길 때는 더덕의 옆면에 세로로 칼집을 내어 뜯어가며 벗긴다.
2. 양념한 고기는 쉽게 탈 수 있으니 약불에서 익혀야 한다.

편집 정리 =백지순 위원



여성 美 한의원

-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저(임덧),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좌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 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풍경소리

달마야 놀자

영화<달마야 놀자>의 기억에 남는 한 장면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그 어떤 것도 담을 수 있을 만큼 넓고 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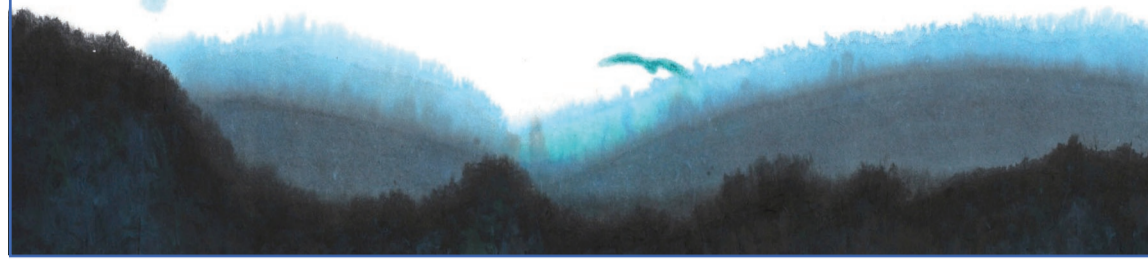
재규(박신양)가 큰스님께 여쭙었습니다.

"스님은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네놈이 밭 빠진 독을 물에 던졌던 것처럼

나는 밭 빠진 네놈을 내 마음에 던졌을 뿐이야!"

달마 김준영 / 풍경소리
나를 찾는 학교 학감



거울

내 얼굴을 보려고
거울을 봅니다.

나를 보려고
거울을 봅니다.

지금 내 앞의 사람이
내 거울입니다.
그 사람에서 내가 비쳐집니다.

은산 스님 / 부산 금선사 주지



이달의 사진

밭벌의 향기로 피어 가라



사진 = 경주 국광사 안성 정사

VISUAL 불교총전 제38화

수행에는 네 가지가 있다. 글/그림 정수일
http://www.drawing라홀라.kr

부처님의 수행 중생의 수행

살려줘요~!

앗! 튜브가 하나뿐인데, 어떡하지?

참! 나는 부처님이야.

용왕이 너를 초대했어.

허! 그래? 뭘 아는 용왕이군.

고맙소! 그런데 당신은?

괜찮소. 이리다 빠져 죽겠지 뭐.

허우적~ 허우적~

내 간을 달라고?

만만 나눠주면 너도 살고 나도 살게되.

헛! 호, 흑시?!

탁!

내 이름은 흑시가 아니라 거북이 올시다.

내가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어.

흥!

두고온 간을 얼른 가지고 오게.

거북군, 고맙네.

흑시 이녀석을 아세요?

니나노~!

두번 살게된 목숨! 간이야 어찌 됐든 술이나 실컷 마시자.

아!그녀석, 저쪽...

수심이 알으니 걸어 가셈.

퐁당~!

부처의 수행은 남을 보호하고자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

앗! 토끼 너.

요, 용왕! 미안하오. 술만 마시다 이렇게 되었소.

내용참조: "불교총전" 제3장 덕행편 428p-17



암반수로 빚은 전통된장

“강화도”

강화도 청정지역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우리 된장



제품 종류

- 된장 1Kg : 20,000원
- 간장 1.8L : 10,000원

영화에서 불교보기 (23)

/명상 같은 영화 <위대한 침묵>

신의 길, 인간의 길



인도의 성자 라마나 마하리쉬는 종교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에게 헌신하는 길과 자아를 탐구하는 길입니다. 신에게 헌신하는 대표적인 종교는 그리스도교이고, 자아를 탐구하는 대표적인 종교는 불교입니다. 신에게 헌신한다는 것은, 인간의 역할을 오직 신을 숭배하는 존재로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아를 탐구한다는 것은, 인간 자신이 바로 신처럼 완벽한 존재라는 개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존재라 해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완벽함이 드러나도록 수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신을 구하는 종교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신을 믿는 종교인들은 밖에서 신을 구합니다. 반면에 자아를 탐구하는 이들은 자기 내면에서 신처럼 완벽한 것을 찾습니다. 결국은 안과 밖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그들이 구하는 대상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안에서 구하고, 다른 하나는 밖에서 구한다고 했는데, 선불교의 이론을 빌어 안과 밖이라고 구분 지을 만한 게 없다고 한다면 안과 밖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을 구한다는 방법만 오롯이 남게 되므로 결국은 한 가지 길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논리로 보면 종교 간의 분쟁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초목은 동색이라고 불교니 기독교니 하지만 종교 간에는 풀빛과 녹색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비종교인에게서 다른 색깔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맞은편에는 물질을 숭배하는,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신에게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의 길을 가는 것이고,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은 인간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은 인간의 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과학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더욱 빠른 속도로 물질로 이동하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정신의 황무지와 같은 시대에도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영화가 있습니다.

<위대한 침묵>(프랑스, 2009)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한동안 술렁였습니다. 저예산의 다큐멘터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종류의 영화에 대한 찬사는 여러 언론을 도배했고, 영성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은 극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신의 길을 가는 신부님들의 세계를 보여준 영화 <위대한 침묵>은 신선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가질 법한 모든 욕망을 끊고 신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주의 세상에서 욕망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많이 새로웠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위대한 침묵>은 실제 신부님들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신부님들은 카르투시오 수도회의 본원 그랑드 샤프트뢰즈 수도원의 수사들입니다. 영화감독인 필립 그로닝은 혼자서 카메라 한 대 달랑 들고 수도원으로 들어가 1년 반 동안 신부님들과 함께 생활하며 신부님들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는 이 영화를 찍기 위해 무려 15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1984년 영화학도였던 필립 그로닝은 수도원에 촬영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고 무려 15년을 기다려서 마침내 허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허락은 했지만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감독 혼자 들어와 수행에 방해되지 않게 조용하게 촬영해야 하고, 개인적인 관념이 들어가는 걸 차단하기 위해 일체의 음향이나 자막도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직 본 것만을 영화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신부님들의 일상이 어떠한 개입도 없이 그대로 보여지는 편입니다.

신부님들의 일상은 너무나 단조로웠습니다. 새벽 6시 30분에 일어나 미사를 올리고, 저녁에 다시 미사 올리고, 자정께 또 미사 올리고, 이렇게 세 번 미사 올리고, 나머지 시간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신부님과 대화도 나눌 수 없습니다. 묵언이 원칙입니다. 복도를 지나다닐 때도 상대의 얼굴을 마주보지 않기 위해서인지 망토를 걸치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지나가고, 식사도 벽에 뚫린 배식구로 담당자가 넣어주면 혼자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상영 내내 미사를 올리기를 위해 복도를 걸어가는 신부님과 혼자서 성경 읽거나 기도하는 신부님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미사 올리고, 내일 또 그 일의 반복이고, 또 다음날도 오늘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 않으니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것도 없고, 감정이 출렁일 일도 없었습니다. 오직 신과의 연결에만 집중하는 삶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몇 번 즐겼습니다. 즐다가 일어나도 걱정할 건 없었습니다. 즐기 전에 보았던 그 장면이었으니까요. 여전히 신부님은 망토를 걸친 채 미사를 드리러 걸어가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커피 스푼으로 재는 인생'이었습니다. 보는 사람도 지겨운데 그런 일상의 주인공들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단조로운 일상을 50년 동안 반복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듯했습니다.

신참 신부님이 혼자서 빵을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나는 그 신부님의 마음이 괴로울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칠 것 같은 권태와 싸우고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갑갑함을 견디지 못하고 수도원을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자유입니다. 누구에게 자유냐 하면, 신부님이 갖고 있던 욕망이 자유를 얻습니다.

수도원에서 고통스러운 것은 욕망이 통제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수도원에는 욕망을 위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잠도 마음껏 꿀 잘 수 없고, 밥도 혼자서 먹습니다. 혼자서 먹는 밥도 신통치가 않습니다. 마른 빵에 희멀건 스프와 생야채가 전부입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끼 뿐입니다. 또한 자정께 미사를 올리기 때문에 잠도 마음껏 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지만 묵언이 원칙입니다. 정말 욕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욕망을 철저히 통제하는 생활입니다. 욕망을 억제하면서 수사들이 얻고자 한 것은 신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버려야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채워진 신은 행복이고, 평화였습니다.

수도원 생활이 오래된 신부님들에게서는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참 수사들은 자신의 삶에 완벽하게 만족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느려터지고 단조로운 일상에 완전히 동화돼서 행복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이 밟그레하고 어린애처럼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억지로 꾸미는 표정이 아니라 정말로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고, 더 맛있는 것을 먹으려 하고, 더 좋은 잠자리에서 자려고 하고,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고, 점점 더 좋은 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 구하는 게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역설적이게도 욕망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욕망을 억제해서 행복을 성취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메커니즘과는 반대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논리는 관객인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우리 욕망을 억제해야 했습니다. 2시간 40분 동안은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동안 몸도 뒤틀리고 마음도 갑갑했습니다.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것은, 욕망이 통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욕망의 통제를 통해서 우리 영화가 끝난 후 평화를 얻었습니다. 영화를 보고났을 때 꽤 오랫동안 명상을 하고 있을 때처럼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고 잔잔한 평화와 맑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위대한 침묵>은 새로운 종류의 영화였습니다. 대부분의 영화는 오욕질정의 감정을 다룸으로써 또 다른 욕망에 부합했는데 <위대한 침묵>은 욕망을 억제시키는 영화였습니다. 욕망을 떠난 곳에서 한순간이나마 깊은 평화를 느끼게 했습니다. 욕망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맑은 샘물과도 같은 영화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영화를 만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비록 다른 종교의 수행자지만 물질이 아닌 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들의 삶은 많은 가르침을 주었고, 우리 안의 자성자리를 돌아보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김은주 <자유기독교>

